청년·경단녀에 창업 희망주는 '희망 상가'

〈경력단절여성〉

'공공임대상가' 젠트리피케이션 막고 주변 임대료 하락 유도
LH, 광주 진월·하남지구, 전남 여수 수정지구 임차인 모집

광주·전남지역 청년, 경력단절여성, 영세소상공인 등을 위한 저렴하고 안정적 경제활동 공간이 마련된다. 공공임대주택 개념을 본뜬 '공공임대상가'로,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고 주변 임대료 하락을 유도하면서 일자리 창출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 지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LH는 올해 광주 하남·진월지구와 여수시 수정동 행복주택단지 내 공공임대상가 11개 임차인을 모집할 예정이다.

'공공임대상가'는 공공임대주택 개념을 상가로 확대 적용한 것으로, 상가를 일반 실수요자 뿐 아니라 청년·경력단절여성·사회적기업·영세 소상공인에게 장기간 임대하면서 '희망상가'로도 불린다.

광주·전남에서는 올해 처음 공급하는 것으로, 공급물량은 청년, 경력단절여성, 영세소상공인들에게 임대하는 '공공지원형'과 일반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가로 나뉜다. 광주 진월지구에 공공임대상가(공공지원형 5개)를 공급해 가장 많고 하남지구와 수정지구는 각각 상가 3개를 공급할 예정이다. 공급 시기는 여수 수정지구가 8월, 진월지구 9월, 하남지구 공공임대상가는 10월에 입주자를 결정한다.

청년·경력단절여성, 사회적기업을 위한 공공지원형(Ⅰ)의 경우 감정평가금액의 50% 수준에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책정되고 영세소상공인을 위한 공공임대상가(공공지원형 Ⅱ)는 감정평가액의 80%로 공급된다. 업계에서는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최장 10년간 임대차기간을 보장하는데다, 주변 시세보다 싸게 임대하는 만큼 희망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LH측은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을 대상으로 임대인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천편일률적인 편의점, 슈퍼 등은 입점토록 하는 대신, 창업아이템의 독창성,혁신성, 사업계획 적합성, 창업의지, 일자리 창출 효과,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지역 부동산업계에서는 임대료 상승으로 자영업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내몰리는 현상인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고 지역 임대료 안정화의 토대가 마련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 하남농협 예수금 5000억 '달성탑' 수상

광주 하남농협(조합장 나왕수)이 상호금융예수금 5000억원을 달성했다.

농협 광주지역본부는 5일 광주 하남농협이 저금리와 경제침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상호금융예수금 5000억원을 달성해 농협중앙회로부터 '달성탑'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광주하남농협은 지난 1973년 영업을 시작한 이후 2012년 상호금융예수금 4000억원에 이어 올해 5000억원을 달성하면서 광주 관내 농협으로는 6번째 5000억원 달성 농협이 됐다.

나왕수 조합장은 "조합원과 임직원, 지역민 사랑이 있었기에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농업·농촌·농협 발전을 위해 더 다가설 수 있는 농협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

광주하남농협은 5일 상호금융예수금 5000억원을 달성해 농협중앙회로부터 '달성탑'을 수상했다. 〈농협 광주본부 제공〉

광주·전남 고금리대출 72%가 고위험가구

〈저소득·저신용·다중채무자〉

지난해 가계부채 잔액 44조원…상환 능력·금리 리스크 우려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저소득·저신용 가구 등의 비은행 대출 비중이 72%를 넘어서는 등 고금리 대출 이용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중은행 등 제1금융권의 외면으로 고금리에도 제 2금융권 문을 두드리는 저소득 가구가 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은행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지적도 나온다.

4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정서림 기획금융팀 과장은 '광주·전남지역 취약차주 부채의 특징 및 시사점'이라는 자료를 통해 광주·전남지역에서 전체 가계대출 중 고위험가구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8.7%로, 타 권역 평균 대출비중(7.3%)보다 높은 실정이라고 밝혔다. .

이외 대전·충남(7.9%), 인천·경기(7.4%), 부산·경남(7.3%), 대구·경북(6.6%) 등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말 광주·전남 가계부채 잔액도 43조9000억원으로, 지난 2015년 말 대비 22.2%확대됐다.

특히 금융기관 대출 태도가 보수화되면서 비은행금융기관 및 비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광주·전남 고위험가구의 경우 지난 3년간(2015년 1분기~2017년 4분기) 저축은행 신용대출 등 분기 평균 고금리대출 증가율은 2.89%로 대구·경북(2.77%), 부산·경남(2.57%) 등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금리 상승기가 본격화되면 대출금리도 높아져 이들 저소득·저신용 채무자의 대출·상환 리스크가 불거질 수 있다.

정서림 과장은 이와관련, "다중 채무자에 대한 부채구조, 상환능력, 금리 상승 리스크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쌀 10대 브랜드상 연찬회

농협전남지역본부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태선)는 최근 올해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쌀 수상을 축하하기 위한 연찬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박태선 본부장과 전남 10대 브랜드쌀 수상 RPC 조합장 및 대표이사 등 60여명이 참석해 서로의 수상을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2018년 전남도 10대 고품질 브랜드쌀은 해남군 '한눈에 반한쌀'을 비롯, 담양군 '대숲맑은쌀', 함평군 '나비쌀', 무안군 '황토랑쌀', 고흥군 '수호천사 건강미', 강진군 '프리미엄 호평', 영광군 '사계절이 사는집', 보성군 '녹차미인쌀', 영암군 '달마지쌀 골드', 신안군 '갯벌에 여문쌀' 등이다. /박기웅 기자 pboxe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453.76 (+6.00)	↓ 금리 (국고채 3년) 2.20 (-0.01)
↓ 코스닥 877.16 (-0.28)	↓ 환율 (USD) 1070.70 (-1.20)

금호타이어 정상화 작업 순항

내달 6일 본계약 앞 상표권 계약·중국공장 TF 구성

금호타이어가 경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7월 6일 예정된 더블스타와의 본계약을 앞두고 '금호 상표권' 사용 계약을 마무리한데 이어 중국공장 문제 해결을 위한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경영컨설팅을 의뢰키로 하는 등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상표권 사용 계약 완료=지난해 금호타이어 매각 실패 원인 중 하나로 꼽혔던 금호 상표권 문제가 최근 마무리됐다.

5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금호타이어는 1~5년까지는 연 매출액의 0.05%를, 이후 6~10년까지는 0.1%, 11년 이후로는 0.2%를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에 지급하는 상표권 사용료 지급 계약을 완료했다는 것이다.

애초 금호타이어는 금호산업에 연 매출 0.2%를 사용료로 지급해왔다. 이후 법원이 2심까지 '금호' 상표권을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이 공동 소유하는 것으로 판단하면서 금호타이어는 금호석유화학과도 계약을 체결했다.

한때 금호타이어 매각 최대 관건으로 꼽혔던 상표권 사용 문제가 해결되면서 더블스타를 통한 경영 정상화 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다.

◇중국 공장 조기정상화를 위한 테크스포스 구성=중국 공장은 전체 생산공장(8개·5400만개) 중 타이어 1800만개를 생산하는 중요한 사업장이지만 중국 내수 판매가 급감하면서 만성 적자에 시달려왔다.

차이융썬 더블스타 회장은 최근 금호타이어 노조에 중국공장 조기정상화를 위한 테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고 답변했다. 차이융썬 회장은 노조의 공개질의서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중국공장 조기정상화를 위한 테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국제적 전문 경영컨설팅 기관에 경영상 퇴를 의뢰, 경영·재무·인사·영업·생산 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독립경영 보장 및 설비투자 약속=차이융썬 회장은 서면 답변에 국내공장의 독립경영 방안 및 설비투자 확대도 약속했다.

그는 "금호타이어의 새로운 관리 경영에 필요한 이사회를 구성해 선진적 경영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이사회 내부에 전문위원회 등을 설립해 관리 경영진의 독립경영을 강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관리 경영진에게 많은 경영권을 부여하기 위해 경영에 관여하는 것을 배제할 것이며 회사(이사회 및 경영진)의 정책 결정은 업적과 프로세스에 따라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차이융썬 회장은 국내 공장 설비투자 확대 방안과 관련해서도 "한국공장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현황을 파악, 경영진이 최우선적으로 국내 각 공장에 대한 투자계획을 마련할 것이며 광주공장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와 분석을 통해 최적의 투자방안을 세울 것"이라고 답변했다.

◇방산부문 매각 승인도 마무리단계=금호타이어 방산 관련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도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항공기용 타이어를 공급하는 방산업체로 정부에 등록돼 있는 상태로, 방산업체 지정 취소를 요청해 산업부는 최근 관계부처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무리하고 금호타이어 방산 부문 처리 방안에 대해 윤곽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아시아나항공 휴가철 세계 휴양지에 전세기

노르웨이 등 증편

아시아나항공이 여름 휴가 기간을 앞두고 세계적 휴가지에 전세기를 투입한다.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7월 10일부터 8월 28일까지 15회에 걸쳐 노르웨이 오슬로에 전세기를 띄운다.

노르웨이는 해가 지지 않는 백야와 피오르드 등 청정 자연의 신비를 만끽할 수 있는 곳으로, 7~8월은 평균 기온이 15도 내외를 유지해 여행하기에 좋다.

또 홋카이도 대표 도시 아사히카와, 하코다테에 오는 7월 21일과 27일부터 각각 5회씩 전세기를 운항한다.

홋카이도 남단 항구도시 하코다테는 '일본 3대 야경'으로 불리는 로프웨이 전망대 야경과 유서 깊은 온천 유원지가 유명하다. 아사히카와는 라벤더 등 여름철 꽃들로 절경을 이루며 일본 최대 인기 관광지다. /김지을 기자 dok2000@